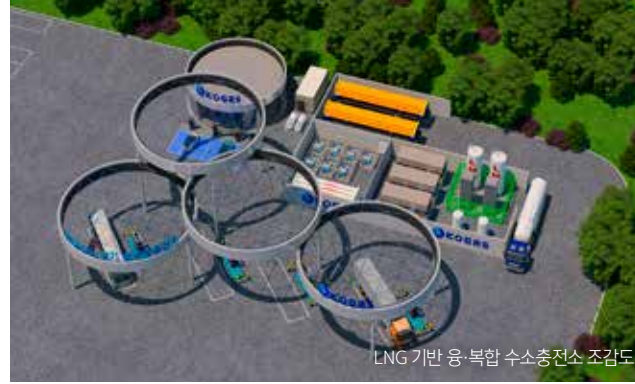


# 가스공사, 친환경 수소 사업으로 그린뉴딜 사업 선도



수소 충전소



LNG 기반 융·복합 수소충전소 조감도



수소 교통 복합기지 조감도

한국가스공사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그린 뉴딜' 정책의 한 축인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우선 공사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수소생산과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단기적으로 추출 수소를 만들기 위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전해 수소 확대와 해외에서 수소를 국내로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대도시 공급을 위한 거점형 수소 생산기지와 융·복합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목표에 따라 공사는 LNG 기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증발 가스를 활용해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한다. 연료전지는 LNG를 수소로 전환한 후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장치로 에너지 효율이 높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비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

석탄은 물론 가스복합발전에도 공해물질(NOx, SOx)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친환경 발전시스템이어서 1MW당 성인 1만2천명이 하루에 호흡하는 공기의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추출한 후 바로 사용해 폭발 위험이 없다. 여러 국가에서 30년 전부터 사용해 안전성이 검증됐다. 또 수소 연료는 운영 과정에서도 폭발 안전, 전기안전에 대해 국제적인 인증 기준 이상의 품질 기준을 적용해 관리 중이다.

현재 부산, 인천,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연료전지 발전소가 운영되

고 있다. 롯데타워, 서울대병원, 어린이대공원 등 도심지 내 설치와 운영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상태다.

이번 연료전지 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미래엔인천에너지 등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총 6천억원을 투자해 인천 LNG기지 내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주거지역인 아파트 단지까지 거리가 4km 떨어져 있어 안전하며, 사업 기간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미래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수소에너지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대 전환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축적된 자원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소 사업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 한국가스공사가 수소도 만듭니다

- 수소 생산기지 전국 총 25개소 구축
- 수소 연료전지 500MW 발전소 건설
- 수소 충전소 전국 총 132개소 구축
- 해외 그린수소 도입 2040년까지 총 121만 톤 수입
- 수소 핵심기술 확보 총 1,600억원 투자

# Everywhere Green Life. H2 KOGAS

